

해운대 달맞이길 해오름 갤러리 '류동균 초대전'

기사등록 일시 : [2014-08-06 11:23:15]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류동균 초대전이 해운대 달맞이길 ‘해오름 갤러리’에서 5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류동균 작가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에 그림을 비유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술작품은 어렵게 느끼면서 부담감을 갖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난해하고 복잡한 현대미술까지 공급되면서 일반 관람객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작가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모든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대중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번 작품전에는 유화 '기타치는 소녀' 등 100호크기 작품 3점을 비롯해 유화와 디지털프린트, 볼펜드로

인 작품 등 25점을 선보인다.

우리의 일상, 친구, 가족,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등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낮이 익고 친숙한 장면들을 작가의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캔버스에 옮겨놓은 것이다.

음악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듯이 그의 그림에도 장르가 등장한다.

프리랩과 상통하는 프리드로잉, 리믹스와 같은 맥락인 디지털프린팅이 그것이다. 오리지널 페인팅이 주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로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기존작업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한다.

무거운 주제와 어지러운 비구상의 혼돈때문에 미술을 외면해왔다면 이번 류동균전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볍게 음악감상을 하듯이 그저 그림을 바라보며 즐기면 된다.

류동균 작가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소회하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대상을 접했을 때 그것을 캔버스로 옮겨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heraid@newsis.com